

선배님들, 그래도 뭘 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Why Don't You Do Something For Our Society, Elders?

이종건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by Lee Jong-Keun

세상이 온통 아단들입니다. 우리세상은 그놈의 경제 때문에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고, 저쪽 세상은 또 저쪽대로 전쟁이며 선거문제 등으로 벌집 들썩서놓은 듯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북쪽을 비롯한 소위 제3국들은 여전히 가난의 늪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해, 차마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참 이기적인가 봅니다. 남이 겪는 생사의 고통이나 사랑하는 자와 생이별하는 현장에서마저도, 한 끼 배고픔과 같은 자기 육신의 고통을 속으로 더 갈급해 하니, 이 얼마나 부조리한 존재인지요. 저쪽 사회가 아무리 바닥을 치고 또 개판이라 한들, 그것은 우리 앞에 오로지 영상으로 다가올 뿐, 어찌 나의 손가락에 박힌 가시만 한 구체적인 고통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제가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한들, 근간 상상하기 힘들게 추락한 허가건수와 면적, 그리고 제살 깎기 식의 비참한 설계비로 힘들어하시는 여러 건축사들의 고통에 감히 견주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말하자면 또, 우리 건축계의 고난이 아무리 심한들 우리 바깥의 사람들은 아마 코방귀나 끼겠냐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목전의 자기 욕망에 갇힌 채, 고통을 생산하는 구조나 시스템이나 주변정황들을 쉽게 돌아볼 여유를 갖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를 보고 철없다 할 선배님들도 많을 줄 압니다. 현장에서 몸소 겪을 수밖에 없는 지극한 처절함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저로서는, 어떤 변명도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또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공감들을 하실 지 알 수 없으나, 희망컨대 이 글을 읽는 순간만이라도 저와 같이 삶의 현장으로부터 잠시 떠나 보심이 어떠하신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목하 의약분업 문제로 여간 고통스럽고 또 만인의 골머리를 썩히는 게 아닙니다. 한 편으로 보건대 그들이 가진 정치력이 마냥 부럽고, 그래서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 도리어 우리 처지가 더 비참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이슈들 중 하나만 들어, 전공의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야말로 '교과서대로' 실천할 수 없는 구조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실하고, 또 그래서 누구도 맞서 반박하기 힘든 주장이나, 도대체 어떤 학의 근본도 우리사회에서 도무지 통용될 수 없는 현실의 총체적인 모습을 우리 모두 알진대, 그게 얼마나 섹시한 요군지 뻔하지 않습니까. 사회의 모든 문제는 힘의 역학 곧 정치로 귀속한다는 사실을 새삼 들추지 않아도, 그들 덕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들여다 볼 기회를 가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건축인들은 어떤 사회적 측면들의 조정과 변혁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까? 그 이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회일반을 거론하기 전에, 우리 건축사회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의 견지에서(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적인 사회의 도모가 아니라, 약육강식이라는 원시적 힘의 대결구도로 사회를 경쟁의 무대로 치환시키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방편에 다름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그 일이 그 일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에너지가 학회와 가협회와 사협회로 이리저리 나누어져 중복 사용되어 소모되는 지극히 비생산적인 현실을, 향차 후배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하시겠습니까? 하나만 우선 짚어봅시다. 세 단체의 발행지(가협회는 얼마 전부터 웹진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여전히 기능은 같습니다)들을 왜 하나로 묶어 낼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인력 풀의 문제에서 보자면, 왜 각기 유사한 분과들을 만들어 같은 일들을 해 나가는지요? 더 나아가, 세 단체를 하나로 합칠 수는 왜 없는지요? 최근 FIKA(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 인가 하는 통합 기구는 참으로 오랜 정신적 가뭄의 단비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계기로 유기적 통합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지요? 제가 감히 판단컨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아마 여타 우리 사회현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기독교가 수십이 넘도록 많은 교파들을 파생시킨 데에는 필시, 서로가 다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소위 천상천하 유아독존 식의 그놈의 유치한 프라이드, 그러니까 제 자리(혹은 밥그릇) 만들기라는 이욕의 뿌리가 엉켜있듯, 우리 세 단체도 그 근본에는 장(長) 자리 욕(慾)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선배님들, 거듭거듭 반복하는 후학들의 소망, 어찌 좀 안되겠습니까?

앞서 말했듯, 당장 일이 없어 사무소 보전조차 막막한 입장이란 걸 저도 희미하게나마 알고 또 피부로 느낍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보아도, 지금만큼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고, 그러니 마땅히 설계경기가 빈사상태로 돌아선 적은 없는 듯 합니다. 각자의 생존걱정에 코가 석잔데, 당장 떨어진 발등의 불이 급한데, 무슨 수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더 나아가 '큰'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느냐고 능히 반문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 번 짚 거창하게 말해서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상념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혹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의 후손들이나 후학들을 위해, 그래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일말의 관심이라도 가지시고 계신다면, 한 번쯤 옛날 선비들이 걸었던 '배움 10년/ 봉사와 실천 10년/ 죽음준비 10년' 이라는 삶의 여정의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혹 그러고는 싶은데, 우리에게 의사들만큼의 정치력이 없는 까닭으로 크게 어찌 할 여력이나 입지가 없다고 말하신다면, 제가 어느 지하철역에서 본 '실패한 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반면 성공한 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말뜻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그 말이 품고 있는 함정도 분명 있습니다만 교훈은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작 외면한 채, 할 수 없는 일만 고민하는 어리석음을 탓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배님들, 혹시 우리나라 서쪽 절반(전라도)과 제주도를 어떤 사람이 독식한다는 소문은 들으신 적 없습니까? 소문이거니 하며 무시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걸 느끼신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벌써부터 그랬습니다만, 일없는 젊은 건축인들이 특히 요즘 그나마 목을 메고 있는 경기설계들이 어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그것조차 해결할, 아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기미조차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연유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저를 두고, 하필이면 이리도 어렵고 힘든 때 그까짓 거창하고 공허한 사변으로 현실을 비켜가려 하나고 질책하시는 선배님들도 적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시면 저는 그 분들에게,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희망을 동시에 거머쥐는, 니체가 요청한 삶의 태도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대는 벌써부터 영웅을 허락치 않았으니,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의 절박한 생의 질곡에 마냥 빠져들 수만은 없는 까닭으로, 최소한 영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영웅적인' 삶은 마땅히 시도해야 하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블로흐가 말하듯, 인간이란 항상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 가고 있는 도중에" 존재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래적 존재이고 동시에 '희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가 있는 곳에 반드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희망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우리건축도 희망 만들기엔 그 시작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의 어떤 희망도 철학처럼 매몰되어 그저 캄캄하기만 하여 도무지 눈을 감고 갈 수밖에 없던 일제강점기 시대, 희망이라는 씨를 뿌리다 앞이 막히거든 오히려 감았던 그 눈을 번쩍 뜨라고 하신 김동주님의 아래의 「눈감고 간다」는 지금의 우리에게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외짝 떠라." (윤동주 - 1941. 5. 31) 선배님들, 자리에 계실 때 뭔가 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ㄹ